

【논 문】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에 대한 고찰

— 『만선일보』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복 실*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만선일보』의 ‘어린이란’과 아동극
- III. 가족의 결핍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
- IV. 계급 관계와 기독교의식의 알레고리적 의미
- V. 나오는 말: 만주 조선인 아동극의 특징과 의의

국문초록

중일전쟁 이후 출현한 것으로 짐작되는 『만선일보』의 ‘어린이란’에는 총 6편의 아동극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그 중 세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일제 말기 조선인 아동극에는 공통적으로 아버지/부모의 부재 등 결핍된 가족이 주인공의 성장 배경으로 나타났다. 결핍된 가족 배경은 주인공들에게 ‘가난하고 가련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었다. 식민지문학에서 아버지/부모의 부재가 국권 상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일제 말기 만주의 조선인 아동극에 등장한 ‘가난하고 가련한 어린이들’은 곧 식민지 어린이들의 슬픈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명랑하고 씩씩하며 착한 심성으로 불행한 현실들을 극복해 나가며 영웅화된다. 이는 낙관주의 세계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아동극에는 자본주의 세계 하에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관계,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의 남녀 간의 계급 관계, 식민주의 세계 하에서의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 관계 등 다양한 계급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일제 말기 만주의

* 고려대학교 박사 졸업.

조선인 아동극은 일정한 측면에서 계급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일제 말기 조선인 아동극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독교의식을 통해 자본주의/식민주의 세계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은유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이는 곧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세계관의 체현이었다.

주제어 : 만주, 『만선일보』, 아동문학, 아동극, 가족의 결핍, 계급 관계, 기독교의식

I. 들어가는 말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존재했던 『만선일보』에는 상당수의 아동문학작품이 수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확인된 작품만 하더라도 동시(동요 포함) 210편, 동화(소년소설 포함) 70편, 동극 6편 등 총 286 편이다.¹⁾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조선의 『매일신보』에 발표되었던 221편²⁾의 아동문학보다 많은 편수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제 말기 만주의 조선인 아동문학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주의 조선인 문학·성인문학이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축적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외된 편이다.

만주의 조선인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는 조선족 학자인 김만석이 가장 먼저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항일아동문학³⁾에만 치우치거나 또는 제한적인 시기의 동시 연구⁴⁾에만 집중하고 있어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문학의 전반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 학자들에 의해 그에 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척되었다. 김화

1) 박경수, 2013, 『『만선일보』 소재 동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 38집, 427쪽, <표 1> 참고. 이 글에 의하면 1938년의 『조선아동문학집』(조선일보사 출판)에 수록된 작품들 중 『만선일보』에 재발표된 작품이 25편이다.

2) 박경수, 2011, 『아동문학 도전과 지역 맥락』, 국학자료원, 226쪽.

3) 김만석, 1994, 『중국조선족아동문학사』, 연변대학.

4) 김만석, 1999, 「1940년대 전반기의 재만 조선아동시가에 대한 고찰」, 『김만석 아동문학연구 - 중국조선족 아동문학사 및 평론』, 시와 사람.

선)은 김만석과 달리 『만선일보』의 아동문학 작품에는 일제의 식민침략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순응을 표현한 작품도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러한 작품에 나타난 저항의 토대가 불분명하고 식민화의 논리가 단순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밖에 박경수의 글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문학 작품의 장르와 작품 편수 및 필진의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대체적인 활동 양상과 작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만선일보』에 발표된 동시를 ‘낙관적 세계인식과 식민주의 담론의 수용’, ‘탈이념적 세계인식과 순수담론의 형상화’, ‘비관적 세계인식과 탈식민주의 담론의 가능성’ 등 세 가지 담론 양상을 논의⁶⁾함으로써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문학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넓혀주었다.

아동문학이 비록 아동 독자를 상정한 문학이지만 그 속에는 당대의 사회적 가치와 어른들의 ‘어린이관’ 및 작가들의 무의식이 투영되어 있다.⁷⁾ 그런 점에서 아동문학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1930-1940년대 만주리는 복합적인 정치·문화 공간에서 생산된 아동문학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만선일보』 소재의 아동극을 대상으로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만선일보』에는 <리아왕>, <세동무>, <요술모자>, <세발자전거>, <이상한 중>, <복동의 부활> 등 총 6편의 아동극이 수록되었다. 그 중 <리아왕>은 완전한 텍스트가 전해지지 않고 <세동무>와 <요술모자>는 동식물을 의인화한 짤막한 동화극이다. 반면 <세발자전거>와 <이상한 중>, <복동의 부활> 등 세 작품은 당대 조선인 어린이들의 현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5) 김화선, 2004, 『『만선일보』에 수록된 일제 말 아동문학 연구』, 『비평문학』 제 19호. 이밖에 『만선일보』에 수록된 아동문학과 조선의 아동문학에서 반영된 만주 체험의 형상화 문제를 연구한 글로 김화선, 2007, 『식민지 시대 아동문학 작품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형상화』, 『국어교육연구』 제40집이 있다.

6) 박경수, 앞의 글, 457쪽.

7) 최윤경, 2012, 『1920-30년대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모티프 연구-아동잡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81쪽.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 세 작품을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본고는 우선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핍된 가족 배경에 주목하여 그것이 주인공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주인공은 그러한 삶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살펴본다. 다음, 세 작품에서 발견되는 계급 관계에 주목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계급연대, 자본주의/식민주의 논리-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일제 말기 만주의조선인 아동극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만선일보』의 ‘어린이란’과 아동극

1. ‘어린이’란의 등장과 변화 과정

1931년 말에 창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탈시시오회보』⁸⁾ 및 그 후신인 『가톨릭소년』은 만주에서 등장한 첫 조선인 아동잡지로 확인된다. 그 전까지 만주의 조선인 어린이들이 접했던 매체는 주로 조선에서 유입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아동문학잡지인 『신소년』과 『별나라』 등이었다. ‘한일합방’, ‘3·1 운동’ 및 중국의 ‘5·4 운동’ 등 국내외의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만주의 조선인 학교에서도 반일사상과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다.⁹⁾ 그러한 배경 하에 1920년대 사회주의 계열의 아동문학잡지가 자연스럽게 만주의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다.¹⁰⁾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가 만주를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는 사라지고 가톨릭 교회에 의해 첫 조선인 아동잡지인 『탈시

8) 탈시시오회는 1905년 로마에서 조직된 소년단체로 3·4세기 로마의 소년 순교자이자 어린이들의 수호 성인인 탈시시오를 주보 성인으로 삼은 단체이다. 최기영은 간도 연길의 탈시시오회가 교구장의 지원을 받아 1931년에 연합회를 조직하고 회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최기영, 2009, 「1930년대 <가톨릭소년>의 발간과 운영」, 『교회사연구』 제 33집, 328쪽).

9) 김만석, 앞의 책, 4쪽.

10) 김만석, 위의 책, 8쪽.

시오회보』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잡지의 등장은 1931년에 조직된 연길교구의 탈시시오 소년회의 소년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소년운동의 목적은 곧 “소년들의 덕성 함양과 아울러 소년들을 성직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¹¹⁾ 데 있었다. 한마디로 포교가 주된 목적이었다. 1934년에 이르러 간도는 물론 전 조선에서 연길교구의 소년운동과 그 기관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탈시시오회보』는 1936년부터 『가톨릭소년』으로 개편하게 되었다.¹²⁾ 최기영의 글에 따르면 『가톨릭소년』은 만주와 조선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가톨릭 전도와 아동문학 지향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¹³⁾ 즉 순수 아동문학잡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소년』에는 윤동주, 윤극영, 강소천, 안수길, 이상 등 유명 작가들의 글이 실려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시 『가톨릭소년』의 위상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가톨릭소년』은 재정적 이유와 일제의 강압으로 인해 1938년에 이르러 결국 폐간되고 말았다.¹⁴⁾

짐작컨대, 조선어로 된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던 『가톨릭소년』의 폐간은 만주의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분명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한편 그 상실감은 잇따라 등장한 『만선일보』의 ‘어린이란’을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되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만선일보』(1939.12-1942.10)에서 독립적인 ‘어린이란’이 발견되는 시점은 1939년 12월 17일자 조간 4면을 통해서이다. 그 전시기의 『만선일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어린이란’의 첫 등장 시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만선일보』의 ‘어린이란’은 중일전쟁 이후 가동되었던 전시총동원의 수요로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을 비롯한 식민지 전반의 모든 요소들이 총동원되던 시점에서 어린이들은 장

11) 최기영, 앞의 글, 327쪽.

12) 최기영, 위의 글, 326~327쪽.

13) 최기영은 『탈시시오회보』가 연길교구에 한정되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가톨릭소년』과는 종교성과 필진 등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최기영의 위의 글 참고.

14) 최기영, 위의 글, 344쪽.

차 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국민’으로 주목받으며 일제의 중요한 포섭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제국의 이념과 국책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매체의 역할이 자못 중요해졌다. 그러자 일제는 ‘만주국’ 기관지이자 만주의 조선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선일보』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 매체의 프로파간다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만선일보』가 확대 개편¹⁵⁾되었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소국민’ 양성을 위한 별도의 ‘어린이란’이 새롭게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선일보』의 ‘어린이란’은 처음 발견되는 시점인 1939년 12월부터 1940년 5월까지 매주 일요일 조간 제 4면에 독립적으로 개설되었다. ‘일요어린이차지’, ‘어린이 일요일 폐지’, ‘어린이 일요일판’ 등¹⁶⁾은 당시 ‘어린이란’이 사용하였던 명칭이다. 이 시기 ‘어린이란’은 세부적으로 뉴스와 국책담론을 거론한 ‘시국인식란’, 동시, 동화와 동극을 실은 ‘문학란’, 그리고 만화, 소화(笑話) 등 가벼운 웃음거리를 담은 ‘오락란’과 서예와 그림을 실은 ‘예술란’ 등으로 구성되었다. 즉 어린이들의 문학예술적 소양과 흥미 양성 및 시국인식에 대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내용들이 비교적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0년 6월부터 『만선일보』가 일간 8면체로 바뀌면서 독립적인 ‘어린이란’은 사라지고 만다. 이때부터 ‘가정란’과 하나의 지면을 공유하게 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무대는 점차 축소되어 갔다. 그러한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아동문학은 꾸준히 전개되다가 1942년 3월에 이르러 결국 자취를

15)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매체의 선전 기능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만몽일보』와 『간도일보』를 통합하여 『만선일보』로 제호를 변경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변경된 제호 『만선일보』는 1937년 10월 21일부터 정식 발행되었으며 지면은 기존의 4면체로부터 조·석간 8면체로 확대되었다.

16) ‘일요 어린이차지’는 1939년 12월부터 1940년 1월까지 사용되었고 ‘어린이 일요 폐지’는 1940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용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 ‘어린이 일요일판’으로 변경되었다가 6월에 ‘어린이’로 다시 변경되었다. 그 뒤, ‘어린이’는 ‘어린이신문’과 번갈아 사용되었다. 1940년 5월까지의 매주 일요일에만 ‘어린이란’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 특별히 ‘일요일’을 덧붙였으나 그 뒤, 일간 8면체로 변경되자 ‘어린이’라는 명칭만 내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감추게 되었다. 물론 그 후에 재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로 인한 물자난 부족으로 신문 지면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 아동극의 전개 양상

『만선일보』에 수록된 6 편의 아동극에 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만선일보』 소재 아동극 작품

작 품	작 가	발표 연도	기타 정보
<리야왕>(2막)	金相德	1939년 12월 10일	2010년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제 16집 희곡 편에 수록.
<세동무>	金蓮湖	1940년 8월 13일	
<요술모자>(1막)	申鼓頌	1940년 10월	1937년 4월, 잡지 『소년』에 처음으로 발표, 1938년 『조선아동문학집』에 수록.
<세발자전거>(3막)	金鎮壽	1940년 11월 3일	
<福童의 復活>(3막)	林白虎	1940년 12월 10일	
<이상한 鐘>(1막3장)	金龍福	1940년 12월 22일	

1940년 후반에 주로 발표된 이 6편의 아동극은 『만선일보』에 수록된 전체 작품 수에 비교하면 실로 미미한 기록이다. 하지만 ‘만주국’시기 조선인들의 전반적인 문학 활동에 있어서 극문학이 가장 저조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되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 시기 조선인 아동극이 상대적으로 활약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극작가의 부족에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만선일보』에 아동극을 발표했던 작가로는 김상덕, 김련호, 신고송, 김진수, 임백호, 김용복 등이 있다. 그중 김련호와 김용복은 각각 동시와 동화에 주력했던 작가였고 임백호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진수,

김상덕, 신고송 등은 전문적인 극작가였는데, 문제는 김상덕과 신고송의 일제 말기 만주 행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의 작가들이 종종 『만선일보』에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과 결부해 보면, 김상덕과 신고송 역시 만주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아니라 단지 조선에서 『만선일보』에 기고했던 작가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섯 명 중 만주에서 활동했던 전문적인 극작가는 김진수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진수는 은진고교의 영어교사로 지내면서 주로 학생극을 주도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아동극작가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아동극작가의 절대적인 부족은 만주 조선인 아동극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아동극이 단순히 ‘읽는 문학’이 아닌 ‘공연을 전제로 한 텍스트’이 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의 부실한 공연 기반 또한 아동극의 저조한 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극이 합○하는 힘은 크다. 그것이 민족을 계발식히고 協和精神을 고양 식히는 점에 있어서도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교육에 연극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유의해온 바였다. 외국서는 연극(혹은 영화)은 아동교육에 不可缺의 要目으로 알고 실천하는 곳도 있다. 이런 역사 밑에서 **재만 아동들을 위하여 정서교육을 위하여 혹은 훈련을 위하여 諸種의 모임을 주최한 분도 있었지만 童劇을 주로 하는 모임은 전연 없었다고** 할 수 있으니 외국에 비하여 1세기 이상 뒤떨어진 것 같은 감이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욕구를 제약시키는 조건이 많다. 경제적
로 인적 구성으로 또는 환경 때문에 이러한 諸種의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童劇(아동극)연구단체가 출현해도 가능할 것을 이번 <손오공>에서 확실히 늦겼다.¹⁷⁾ (인용자 강조)

위의 자료는 일본인이 각색한 아동극 <손오공>에 대한 공연평을 통해 아동극의 중요성 및 조선인 아동극 단체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17) 夷堂人, 「兒童劇을 위하여-‘小國民의 밤’ 感想」, 『만선일보』, 1941.11.2.

글로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의 공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조선민족의 발전과 ‘만주국’의 이념 고양 및 아동 정서 교육 등에 있어서의 아동극의 교육적 역할을 중요하게 피력함과 동시에 만주 조선인 사회에 그 역할을 담당할 일익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조선인 사회에 아동극 단체가 전무한 원인을 경제, 인력, 환경 등 요소로 귀결하였다. 말하자면 만주 조선인 아동극 단체의 조직은 극작가, 배우, 연출가 등 인적 구성과 극단운영의 자금, 그리고 연극 훈련과 공연 장소 등 기본적인 공연 조건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연 기반의 성숙함은 역으로 극작품의 출현을 일정하게 촉진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일제 말기 만주의 조선인 아동극은 공연 기반이 미숙했던 탓에 그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일제 말기 만주의 조선인 아동극이 주로 ‘읽는 문학’ 즉 희곡으로만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김상덕의 <리아왕>을 제외한 『만선일보』의 아동극은 그 텍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리아왕>은 1939년 12월 10일, 17일에 2회 연재된 후 중단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각색한 작품인 듯하다.

김련호의 <세동무>는 민들레 자매와 나비가 사이좋은 친구로 지낼 것을 다짐하는 순수 동극이다. 1940년 『만선일보』에 재발표된 신고송의 <요술모자> 역시 순수 동극으로 마술사의 마술에 속아 넘어가는 동물들을 의인화한 작품이다. 꽃과 나비를 비롯한 동식물은 1920년대 조선의 아동문학 및 아동극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호였다. 특히 꽃과 나비, 새 등 작고 아름다운 동식물은 어린이 표상의 핵심이었다.¹⁸⁾ 그런 점에서 일제 말기 만주의 조선인 아동극은 1920년대 조선 아동극의 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발자전거>와 <복동의 부활>, <이상한 종> 등은 당시 어린이들의

18) 손증상, 2018, 『1920-30년대 아동극 연구: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를 대상으로』, 경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47-49쪽.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극적 구성이 앞의 세 작품에 비해 보다 풍부하다. 김진수의 <세발자전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광수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광수는 동네 아이들이 저마다 한 대씩 갖고 있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럴 형편이 못된다. 이로 인해 광수는 동네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어느 날, 아이들은 자전거가 없다는 이유로 광수를 ‘자전거달리기경기’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자 광수는 친구 옥순이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경기에 참여하여 결국 일등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준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광수의 밝고 씩씩한 성격을 크게 부각시켰다.

김용복의 <이상한 종>에는 부모를 잃고 둘이서 살아가는 남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추운 겨울날, 공장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두 남매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날, 공장일을 마치고 성당으로 향하던 남매는 추위에 떨며 구원을 요청하는 걸인을 발견하고 그를 부축하여 성당까지 간다. 남매의 선행은 결국 좀처럼 울리지 않았던 ‘이상한 종’을 울리면서 축복의 대상이 된다. 즉 작품은 당시의 어린이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교육을 종교적 의미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임백호의 <복동의 부활> 역시 크리스마스를 시간 배경으로 삼았다. 크리스마스 전날, 복동의 노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인형의 탈을 쓴 ‘악마’가 등장하여 갓난아기 복동이를 납치해 가고 그 자리에 큰 목각인형을 놓고 간다. 집에 돌아와 이를 발견한 노부부는 애지중지하던 늦둥이 복동이가 몹쓸 병에 걸렸다면 상심에 빠진다. 이에 집앞을 지나가던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한다. 의사는 복동이의 병은 마을의 돌림병으로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것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한다. 한편, ‘악마’에게 납치된 복동이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도둑으로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악마’는 복동이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동네의 부잣집

아이들을 납치해오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복동이는 우연히 자신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그가 깨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와 극적으로 상봉한다. 새롭게 부활한 복동이가 노부모와 산타클로스로부터 축복의 선물을 받으면서 극은 막을 내린다.

다음 장을 통해 이 세 작품에 나타난 가족의 결핍과 계급 관계 및 기독교 의식에 주목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Ⅲ. 가족의 결핍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

1. ‘가난하고 가련한 어린이들’ - ‘식민지 어린이들의 슬픈’ 표상

아버지 또는 부모의 부재는 <세발자전거>, <이상한 종>, <복동의 부활> 등 세 작품 속 주인공들의 기본적인 삶의 배경이다. 즉 그들은 공통적으로 결핍된 가족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세발자전거>의 주인공 광수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이상한 종>의 영일, 영신 남매에게는 부모가 없다. 복동이(<복동의 부활>)의 경우,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납치된 사실을 모른 채 목각인형을 병든 복동이로 착각하는 무능력한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극의 전개 과정에서 복동이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복동이 역시 고아 혹은 “기능적 고아”¹⁹⁾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 또는 부모 없는 아이의 등장은 아동문학을 포함한 한국근대문학의 특징 중 하나였다. 특히 식민지시기 한국문학에서 아버지/부모의 부재는 종종 부권의 상실, 나아가 국권의 상실로 인식²⁰⁾되어 왔다. 그러므로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문학에 나타나는 가족의 결핍 역시 ‘국권을 강탈당한 식민지 작가들의 집단적 무의

19) 부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기능적 고아”라고 한다(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2009,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192쪽). 복동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20) 김윤식, 1980,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238쪽.

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²¹⁾

이와 같은 결핍된 가족 환경으로 인해 어린 주인공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가난하고 가련한 어린이들'로 형상화된다.

<세발자전거> 속 광수네의 가난한 삶은 그의 집을 묘사한 극의 첫 대목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차림차림이 보잘것없는 광수의 집. 방안에는 의○대신에 가난스러운 옷계가 초라스럽게 노려있고 광수어머니의 재봉기구(반지그릇쌘지)만이 난잡스럽게 훑터져 있다. 광수의 공부하는 책도 방구석에 멋대로 널려있다. 막이 올라가면 방안에서는 복수, 복수어머니,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있는 데 ...²²⁾

'보잘 것 없는 집'과 '허름한 살림살이', '광수의 책',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 있는 복수와 어머니'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 광수네 가족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 가족은 여동생 복수와 어머니의 싹바느질로 겨우 살아가며, 것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광수가 학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품은 그들이 이토록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부재 탓이라고 강조한다. 광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광수네 살림은 단숨에 무너졌고, 그 때문에 정든 고향마저 떠나 타향에서 싹바느질로 연명하는 형편이 되었다. 여동생 복수 또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동네 아이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마저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즉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그의 부재는 결국 광수네 가족의 가난한 삶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가난한 생활은 작품 제목인 '세발자전거'를 통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자전거가 없는 광수는 늘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며 자신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 복수가 학교마저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광수는 결코 세발자전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

21) 최윤정, 앞의 논문, 88쪽.

22) 김진수, <세발자전거>, 『만선일보』, 1940.11.3.

한 까닭에 광수는 동네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것은 물론 ‘자전거달리기 경기’에서도 제외된다.

봉 식 너가튼 꼬마는 하지 못해, 쉬쉬 물너까라, 찻가라-(물끄러움이 서있
는 광수를 보고) 야, 광수야, 너는 자전거도 업는데 저리 비켜!
영 곁 바보갓트니, 저건 자전거도 못타겠지(광수보고)야, 광수야, 자
전거가 타고 십지(자전거를 내보이며)이거 좀 타보겠니?
광 수 ... (치미러 오르는 분을 놀고 가만 있다)
영 곁 썩 - 썩- 하늬(??)
광 수 (영곁에게 달려들며)어째 요곁 그저 - 자전거나 하나 가졌다고
썩내지 말어, 나도 우리 어머니보고 자전거를 사달래겠서.
영 곁 네가 자전거를 사달래겠서? 너의 집에 돈이 잇단말이나? 아버
지도 업스면서²³⁾

이처럼 자전거를 둘러싸고 동네 아이들과 대조되고 그들로부터 소외되면
서 광수의 가난하고 가련한 이미지는 더욱 강조되었다. <이상한 종>의 영
일, 영신 남매 역시 비슷한 극적 구조를 통해 ‘가난하고 가련한 어린이들’로
형상화되었다. 이들 남매는 부모가 없는 천애고아라는 신분만으로도 불쌍한
아이들로 규정된다. 거기에 추운 겨울날, ‘초라한 빈민굴’에서 밤늦도록 공
장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묘사되면서 그들은 더욱 처량하고 불쌍한 이미지
로 형상화된다.

초라한 빈민굴집안 좌편에는 거이다 부서져가는 책상, 책상우에는 노닥
노닥 처진 성경책과 찬송책이 네권이 똑바로 노여있다. 우편에는 현고리씩,
고리씩 우에는 이불포단 베개가 언지위있다. 막이 열리면 영일리와 영신
이 는 조고마한 벼집단을 가각 아페 노코 병싸게를 열고 있다. 영일리와 영신
이가 마조 안진 사이에는 ○○○한개.

23) 김진수, 위의 작품, 『만선일보』, 1940.11.6.

- 영 신 「아이구, 손시려죽겠네,
(셋발하게 언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다가 화루분에 손을 쏘인다)²⁴⁾
- 영 일 자 - 영신아, 아마 밤도 껍 깐었는가보다. 일을 거더치우자, 그
리고 이것을 공장에 갖다주고 돈을 받아오자.(분주히 방을 정
리한다)
- 영 신 「……」(갓티 정리한다) (사이) 「이제 공장에 가지고 가도 되나,」
- 영 일 「그럼, 되구말구, 특별 교섭을 해두었스니까」²⁵⁾

영일, 영신 남매가 이처럼 가난하고 가련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모의 부재에 있다는 점은 매우 자명하다. 식민지시기 아버지/부모의 부재가 국권 상실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난하고 가련한 광수, 영일, 영신은 곧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 조선 혹은 만주 조선인 어린이들의 슬픈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두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삶의 처지, 특히 고아 남매의 처지는 독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의 가난하고 가련한 삶의 서사는 1920년대 조선 아동문학에서 독자들의 “‘감성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텍스트”²⁶⁾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감성교육”이란 독자들로 하여금 불쌍한 주인공의 처지를 자신과 동일화하여 눈물샘을 자극함으로써 감정을 정화시키게 하는 서사형식이었다.²⁷⁾ 당시의 독자들이 작품 속 주인공들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자신과 동일시하였다면, 아마도 그 과정에서 나라 잃은 자신들의 모습과 대면하면서 슬퍼하였을 지도 모른다.

2. ‘명량하고 씩씩하고 착한 어린이들’ - ‘영웅적 어린이들’의 표상

주인공 광수와 영일, 영신 남매는 자신들의 가난하고 가련한 처지에 전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련을 극

24) 김용복, <이상한 중>, 『만선일보』, 1940.12.22.

25) 김용복, 위의 작품, 『만선일보』, 1940.12.26.

26) 최윤정, 앞의 논문, 100쪽.

27) 최윤정, 같은 쪽.

복해 나가는 어린이들로 묘사되었다. 광수의 이러한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대목에서 드러난다. 하나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전거달리기경기’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이 경기에서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던 광수는 당당히 일등을 함으로써 마치 모험을 이겨 낸 영웅처럼 형상화된다. 광수의 이러한 영웅적 면모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을 통해서도 부각되었다. 경기에서 패배한 동네 아이들은 광수에게 자전거를 빌려 준 옥순이에게 양심을 품고 그를 한 대 때려주고 자전거마저 개천에 빠뜨리고 달아난다. 이를 알게 된 광수는 달아난 아이들을 쫓아가 때려 주고 개천에 빠진 자전거를 끌어 올려 깨끗하게 닦아 주며 옥순이를 위로해 준다. 그는 또한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여동생 복수에게 글을 가르쳐 줌으로써 배움에 대한 복수의 열망을 채워주고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준다. 즉 광수는 ‘절대적 존재’인 아버지의 부재가 초래한 일련의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대응함으로써 부성의 결핍과 역경을 극복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광수는 험난한 시련을 극복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 내는 ‘영웅적인 어린이’로 거듭나게 되었다.

영일과 영신 남매 역시 광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착한 어린이들로 묘사되었다. 남매의 착한 도덕성은 곧 <이상한 종>이 전달하려던 메시지였다.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성당으로 향하던 남매는 길가에서 추위에 떨며 구원을 요청하던 걸인을 선뜻 도와주었다.

거 지 「네, 저, 거지입니다. 좀 살려주」

영 일 「아-그렇습니까?(영신을 뿌려트리며-)어 책 좀 들라(거지 잇는 곳으로 급히 간다. 영신에도 따르다)아 - 웨 치운 곳에 누어계 십니까 - 어대 다치지나 안헛습니까?»(쏟어져 잇는 거지의 허리를 아나 일으킨다)

영 신 「아이구 참 불상해」

(목에 두르고 잇든 디오루?) 수건을 풀어 거지를 조심스러히 덮어준다)

영 일 「과히 다치지나 안엇습니까?」
 거 지 「아이 참 고맙소, 당신들이 안이엇드면 난 이 치운 밤에 얼어죽
 을번 하엿소, 아이치워, 아이배고파」
 영 일 「자-이분을 잠간 붓들어(영신이 붓든다, 영일이 급히 입고 잇든
 주의를 버서 거지를 댕뜨며) 자 - 치운데 이것이라도 좀 쓰시우」
 거 지 「참말 고맙소」²⁸⁾

영일과 영신이는 자신들이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와 옷을 선뜻 걸인에게 내어주고 그를 부축하여 성당까지 데리고 갔다. 그들의 착한 심성은 걸인을 도와주기는커녕 더럽고 불길하다며 발로 차고 침을 뱉던 행인들의 비도덕적인 행위와 대조되면서 더욱 강조된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목숨까지 구해 준 남매의 영웅적인 행동은 결국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울리지 못했던 ‘축복의 종소리’를 울리게 된다. 작품은 이처럼 남매를 가난하고 가련한 고아로부터 ‘영웅적이고 신의 은총을 받은 어린이’로 형상화시켰다.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에서 ‘부모의 부재는 오히려 아동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²⁹⁾ 즉 부모의 부재는 일정한 측면에서 주인공을 동정의 대상인 ‘가련한 어린이’로부터 배움의 대상인 ‘영웅적인 어린이’로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들의 ‘명량함’과 ‘씩씩함’, ‘착함’은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묘사된 성격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격 특징이 식민지문학에서 강조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나는 식민지 만주 또는 조선의 입장에서, 다른 하나는 일제의 식민주의담론의 측면에서 ‘명량함’과 ‘씩씩함’, ‘착함’의 성격 특징을 강조한 의도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식민지 어린이들의 결핍된 정서를 교육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28) 김용복, 앞의 작품, 『만선일보』, 1940.12.30.

29) 최윤정, 위의 논문, 101쪽.

즉 부모 잃은 어린이들을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 어린이들과 동일시함으로써 만주 또는 조선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작품 속 주인공들처럼 명랑하고 씩씩하게 결핍의 현실과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 나가도록 정서적으로 고무하고 격려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일제 말기의 전시체제 속에서 불안해 할 어린이들을 위안하고 격려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명랑함’과 ‘건전함’(또는 ‘씩씩함’)은 일제 말기 식민주의담론으로서 강조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상의 아동극에서 ‘명랑함’과 ‘씩씩함’이 식민주의담론으로 작용하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두 작품 속 어린이들이 일본 제국의 ‘소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국민’의 정체성이 성립되려면 국권 상실과 연결되는 아버지/부모의 부재가 주인공들의 기본적인 삶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제의 식민주의담론에서 아버지/부모는 곧 제국 일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에 나타난 ‘명랑함’과 ‘씩씩함’을 식민주의담론을 선전하기 위해 강조하였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모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전자의 가능성에 힘을 싣고자 한다.

IV. 계급 관계와 기독교의식의 알레고리적 의미

1.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일제 말기 조선인 아동극에는 다양한 계급 관계가 나타난다. <세발자전거>는 자전거를 둘러싸고 계급적 대립 관계와 갈등이 형성되어 있다. 작품에서 근대의 산물인 자전거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부르주아의 소유물로 상징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갖고 있는 동네의 아이들은 ‘부자’-부르주아 계급이며 어머니가 밤새도록 일을 해도 자전거를 소유할 수 없는 광수는 ‘가난한 자’-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작품은 ‘자전거달리기경기’를 통해 두 계급 간의 ‘투쟁’을 형상화시켰으며 나아가 광수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

아 계급의 승리를 보여 주었다.

한편, <세발자전거>에는 또 다른 계급 관계가 등장한다. 바로 광수와 옥순이의 관계이다. 옥순이는 사실 동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소유한 ‘부자’로서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다. 그러나 아버지를 ‘절대적 존재’로 표현한, 가부장적 의식이 짙게 깔려 있는 이 작품에서 옥순이는 자전거와 상관없이 여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옥순이를 “그까짓 계집애”로 취급하는 동네 아이들의 표현을 통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작품은 옥순이 뿐만 아니라 광수의 여동생 복수와 동네 꼬마아이도 약자로 표현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옥순이와 광수는 동일한 계급 관계를 형성할 수 없지만,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즉 여자인 옥순이와 아버지를 잃은 광수는 가부장적 사회의 약자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계급 관계로 취급할 수 있다. 작품에서 옥순이가 자신을 “그까짓 계집애”로 취급하는 동네 아이들의 위선적 요구, 즉 옥순이를 친구로 취급하는 척하면서 광수에게 자전거를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협박을 거절하는 반면, 자전거를 빌려달라는 광수의 부탁을 선뜻 들어주는 대목은 바로 그러한 계급 관계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광수가 옥순이를 대신하여 동네 아이들을 응징해 주는 대목 역시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이해 가능하다. 그들의 이러한 협력은 곧 사회적 약자들의 계급적 연대를 표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복동의 부활>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복동을 비롯하여 ‘악마’에게 납치된 아이들, 그리고 아이를 빼앗기고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복동이의 노부모는 무능력하고 ‘약한 자’/‘선한 자’로, 반면 ‘악마’는 그 이름처럼 ‘강한 자’/‘악한 자’로 등장한다. ‘악마’는 동네의 아이들을 납치하는 행위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둑질’까지 강요한다.

악마가 곤봉을 들고 서있고 그 아페에 의자 세네개 노혀있다.
 악 마 (혼자말로)내일이 빌어먹을 크리스마스이지? 놈들을 불러내다
 도적질을 맘껏 식혀 울해야말이지 좀 배를 툭툭히 채워야지
 되겠군 ...

... (중략) ...

악 마 너는 나가서 부잣집 아해들을 피어오너라, 물론 사내아히도
 조코 계집애두 조다, 붙잡아다 가두어 두기만 하면 한미천
 툭툭히 되거든, 알았지?

일 동 네
 악 마 그리고 세상업서두 내일 저녁가지는 어김업시 도라와야 한다.
 물론 만이 흠친 놈에게 상금도 만이 준다. 벌써 너이들을 3,4년
 이나 거저 먹여살린 내가 아니냐, 그렇지?

일 동 그렸습니다.
 악 마 그대신 하나도 못흠친 놈에겐 무선을 벌을 줄테다, 알었지?
 (발을 구르고 곤봉을 휘두르며 썰리는 시늬를 한다.)

창 길 아. 인제 살었다, 언제든지 대장이 흥 달굴 썬 머리끝이 다아
 옷씩하드라.

2 인 참말이 마졌다. 금시 벼락을 맞는 것만 같테서, 아아 무서워(몸
 을 떠다)

복 동 헌데 우리는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업슬까?
 창 길 아마 우리도 어디서 대장이 흠쳐온게지 ... 하지만 이전 생각
 해야 별수 없지 안그래(풀이 죽는다)

영 순 (울쌍이 되어) 참 별수 없을까?(후후 느끼다.)

창 길 쉬-쉬(도라보며) 대장 들을라, 잘못하다간 요전 문길이처럼 것
 끈 마저 호랭이밥이 될는지 모른다

2 인 (몸을 썰며) 아이 무서워.³⁰⁾ (인용자 강조)

아이들은 ‘악마’의 악행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명령을 거역하거나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경우, 호되게 매질을 당해 목숨까지 빼앗기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

30) 임백호, <북동의 부활>, 『만선일보』, 1940.12.14.

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잠식하는 ‘악마’와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관계는 곧 자본주의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관계로 이해된다. 작품은 언뜻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논리이다. 아울러 그 논리 속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관계도 내포되어 있다. 즉 납치한 아이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악마’와 그 지배를 받는 아이들의 관계이다. 식민지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는 종종 식민주의 논리로 연결될 가능성을 갖는다. <복동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납치’와 ‘도둑질’을 일삼는 ‘악마’는 착취적 본능을 지닌 식민자로, 부모 혹은 자식을 강제로 빼앗기고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복동이를 비롯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는 국권을 상실한 무기력한 피식민자로 표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별서 너 이들을 3,4년이나 거저 먹여살린 내가 아니냐”(위 인용문)는 ‘악마’의 ‘속삼임’은 피식민자에 대한 착취와 지배를 그들에 대한 보호와 혜택으로 미화시키는 식민자의 논리를 연상시킨다. 한편, 복동이와 아이들은 자신들이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악마’에게 납치당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야 별수 없다”(위 인용문)며 한탄할 뿐이다. 여기서 식민주의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지 못하는 피식민자의 나약한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납치’와 ‘도둑질’을 일삼는 ‘악마’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상 강조하려는 것은 곧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논리 및 착취와 피착취의 식민주의 논리이다. 그 중,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논리는 1930년대 조선의 아동극에도 나타났던 양상이다. 다른 점은 조선의 아동극은 의인화기법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³¹⁾하였다면, 만주의 조선인 아동극은 인물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인간세계의 비합리적인 사회구조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31) 손증상, 앞의 논문, 340쪽.

2. ‘평화롭고 희망찬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염원

‘성탄극’이라 명명되어 있는 <복동의 부활>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찬송가’, ‘예수 그리스도’ 등을 통해 기독교적 색채를 강조하였다. 제목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으로 기독교의식을 담고 있는데, 극 중에서 이 의식은 일종의 알레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의식의 알레고리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주인공 복동의 정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복동이는 단순히 노부부의 늦둥이 아들, 그리고 ‘악마’에게 납치된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착하고 귀하며 세상을 다스릴 주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산타클로스의 독백을 통해 알 수 있다.

산타클로스 (수염을 쓰다듬으며) 악마를 쫓아내고 예수의 뜻대로 낙원을 세우자는 것이 나의 희망이지 ... (중략) ... 이제 복동이가 두치만 더 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산이 있는 지구를 (지구의를 쥐여들며) 선사해야 될텐데. 이 지구는 가장 착하고 귀한 복동이에게 주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텐데, 복동이는 아직 두 치가 모자라거든, 복동아, 어서 자라서 이 지구를 가져라. 내년 크리스마스까지는 싹 두치만 더 커라 응³²⁾ (인용자 강조)

예수의 ‘사자’격으로 등장하는 산타클로스는 ‘악마를 쫓아내고 예수의 뜻대로 낙원을 세우고자’ 하며 그 ‘낙원’을 다스릴 주인으로 복동이를 점찍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동이가 ‘가장 착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노부부의 늦둥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그의 ‘부활’을 통해서이다. ‘복동의 부활’은 노부부의 시점에서 성립된다. 크리스마스 전날, 목각인형에 숨어들었던 복동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노부부의 기도를 듣고 그 인형 속에서

32) 임백호, 앞의 작품, 1940.12.10.

나오는데, 이를 목격한 노부부는 복동이가 부활했다고 믿으며 감격해 한다. 이처럼 작품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라는 시간적 배치와 오해, 우연 등의 표현 수법을 통해 ‘복동의 부활’에 기독교의식을 부여하였다. 주지하듯이 기독교에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동이가 부활했다 것은 곧 복동이도 예수와 같은 ‘귀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이다. ‘축복 받은 아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복동이는 장차 ‘새 나라를 이끌 주인’이라는 점에서 ‘귀하고 신성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복동의 부활’은 과연 어떠한 알레고리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 문제는 작품 속에 내재된 자본주의 또는 식민주의 논리와 결부해 보았을 때 보다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산타클로스의 독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복동이가 이끌어갈 새 나라는 ‘악마가 없는 낙원’이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기 전에 살던 곳은 ‘악마’가 주도하던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착취, 피착취의 식민주의 세계였다. 따라서 ‘약한 자’/‘피착취자’들이 단합하여 그 ‘악마’를 쫓아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동이와 아이들은 ‘악마’와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작품은 ‘악마’가 없는 가상의 세계, 즉 기독교의식의 세계를 열어준다. 동시에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복동이를 잔혹한 ‘악마’의 세계로부터 구원하여 기독교의식의 세계 속으로 데려다 준다. 그 세계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대립의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낙원’과도 같은 세계였다.

영감 : 우린 너박게 바랄게 업다. 소원대루 해주마!

노친 : 참, 영감,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복동에게 무엇을 선물하려우

영감 : 그래 노친은 무얼 주겠소

노친 : 나는 찬란한 무지개를 선사해야지

영감 : 나는 지구를

산타클로스 : (이 말을 듣고 당황하야) 그 - 지구, 그러면 나는 희망을 선사해야겠소

영감 : (양쓸팔로 둥그러케 그리면서) **그러면 난 이 크나큰 우주를**
 2인 : 할범, 애를 축하해 주세요
 산타클로스 : 암, 하구말구요, **오오 평화도 지구도 우주도 다아 복동의**
의 것이다.(영감과 노친을 보며) 자아, 가치 축복의 노래 부릅시다.
 축복의 노래를 중간을 할지음, **문박계 악마 나타나 이 광경을 엿보고 절**
망하야 ○처럼 소리는 내고 분 듯 머리를 쥐어뜨드며 쓰러진다 - 막³³⁾

그곳에서 복동이는 예수처럼 부활함과 동시에 산타클로스와 노부부로부터 ‘찬란한 무지개’, ‘희망’, ‘평화’, ‘지구’, ‘우주’ 등을 선사받는다. 이와 같은 축복의 선물을 받으면서 복동이는 무지개처럼 빛나고 찬란하며, 희망차고 평화로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악마’는 결국 절망하여 쓰러지고 만다. ‘악마’가 기독교적 세계에서 비로소 응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복동의 부활>은 주인공 복동이가 기독교의식을 통해 자본주의/식민주의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평화롭고 희망찬 새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알레고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복동의 부활>은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의미한다.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알레고리적 의미는 곧 작가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말기 만주의 식민문화통치권 안에서 『만선일보』라는 식민기관의 간행물을 통해 자본주의/식민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작가는 기독교의식의 알레고리적 기능을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작품이 ‘식민자’/‘피식민자’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피식민지(만주 혹은 조선) 조선인 독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작품 속에 나타난 자본주의/식민주의 현실을 자신들이 처한 일제의 식민지 현실과 동일시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 조국(조선)과 민족 해방을 향한 작가의 소망에 공감하였을 것이라 상상된다.

33) 임백호, 위의 작품, 『만선일보』, 1940.12.19.

V. 나오는 말 : 만주 조선인 아동극의 특징과 의의

지금까지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에 대해 크게 가족 결핍, 계급 관계, 기독교의식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아버지/부모 부재라는 가족의 결핍은 작품 속 어린이들에게 가난한 삶과 가련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었지만, 그들은 ‘명랑함’과 ‘씩씩함’, ‘착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련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영웅적 어린이들’로 변화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에 나타난 낙관주의 세계관의 표현 특징이었다.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지향하는 의식 특징이다.

이 시기 아동극은 자본주의 세계 하에서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관계,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의 계급 관계, 식민주의 세계 하에서의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 관계 등 다양한 계급 관계 및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계급 ‘투쟁’, 계급 연대, 자본주의/식민주의 논리 등)를 다루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 말기 만주의 조선인 아동극은 계급주의 성향을 일정하게 지니고 있다. 이는 1920년대 만주에서 성행하였던 반제반봉건 성격의 학생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 만주의 조선인 학생극에서도 아동극에 나타난 계급 문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제 말기 아동극은 계급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소 소극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학생극과 좀 다르다. 예컨대, 1920년대 학생극의 경우 지주와 소작농, 공장주와 노동자 등과 같이 계급적 대립 관계 및 계급투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던 반면, 일제 말기 아동극의 경우에는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자전거’라는 매개물을 통해 계급 관계와 계급 ‘투쟁’ 및 계급 연대 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내적 논리를 통해 자본주의/식민주의의 비합리성을 우회적으로 폭로하였다.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기독교의식을 알레고리적 기능으로 활용한 점이다. 이는 크게 포교와 항일운동 혹은 민족해방운동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II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에는 『가톨릭소년』이라는 아동잡지가 출현하여 간도를 포함한 만주의 곳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가톨릭과 문학을 결합한 형태가 이미 만주의 조선인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텍스트였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1940년 12월에 연속 두 편의 아동 ‘성탄극’이 연재된 것은 바로 그러한 지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한편, 만주의 기독교는 일찍부터 민족해방운동, 항일운동과 연관되어 왔다. 1919년의 3·1운동에서 활약하였던 조선의 교회는 만주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³⁴⁾ 당시 “기독교의 민족주의 노선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항일 투쟁의 성과를 견인”³⁵⁾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만주 기독교의 이러한 민족운동은 해방 후, 안수길의 『북간도』에서도 사실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기독교의 항일운동 및 민족해방운동이 당시의 만주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로 항일과 민족해방에 대한 소망을 은유적으로 담은 <북동의 부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작품에서 기독교의식은 알레고리의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곧 종교적 즉 초월적 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는 낭만주의 세계관의 체현이었다.

식민지 현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거나 그에 대항할 수 없었던 일제 말기의 상황에서 만주의 조선인 아동극은 때로는 낙관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의식을, 또 때로는 소극적인 계급주의의 의식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식민지 현실에 대응하였다.

아동극의 이러한 의도가 일제 말기 만주의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조선어로 된 색다른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오락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 교육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

34) 표연복, 2018, 『소설로 쓴 만주 기독교 항일운동사-안수길의 『북간도』』, 『기독교사상』 8월호, 155쪽.

35) 표연복, 위의 글, 같은 쪽.

다. 이는 또한 만주의 조선인 어린이들에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일제 말기 만주 조선인 아동극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만몽일보』(마이크로필름), 서울이미지연구소, 1988

『만선일보』(마이크로필름), 서울이미지연구소, 1988

2. 연구문헌

김만석, 1994, 『중국조선족아동문학사』, 연변대학

김만석, 1999, 「1940년대 전반기의 재만 조선아동시기에 대한 고찰」, 『김만석 아동문학연구-중국조선족 아동문학사 및 평론』, 시와 사람

김윤식, 1980,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김화선, 2004, 「『만선일보』에 수록된 일제 말 아동문학 연구」, 『비평문학』 제 19호

_____, 2007, 「식민지 시대 아동문학 작품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형상화」, 『국어교육연구』 제40집

마리아 니콜라예바, 조희숙 외 역, 2009,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교문사

박경수, 2011, 『아동문학 도전과 지역 맥락』, 국학자료원

_____, 2013, 「『만선일보』 소개 동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38집

손증상, 2018, 「1920-30년대 아동극 연구-『어린이』, 『신소년』, 『별나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최기영, 2009, 「1930년대 <가톨릭소년>의 발간과 운영」, 『교회사연구』 제33집

최윤정, 2012, 「1920-30년대 한국 아동문학의 가족모티프 연구-아동잡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표언복, 2018, 「소설로 쓴 만주 기독교 항일운동사-안수길의 『북간도』」, 『기독교사상』 8월호

투고일 : 2018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0월 29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ldren's Theater in Manchurian Korea
— Focusing on the Works in the “Manseon Daily” —

Li Fu Shi(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ree children's plays of the *Man Son Daily*, which presumably appear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Toward the end of Japanese rule, children's plays of Manchukuo Korean people shared several features, one of which was a storyline in which the main characters had often lost one or both parents. In this backdrop, families were often depicted as destitute, which often magnified images of poverty. In colonial cultures, the loss of one's parents often symbolizes the loss of sovereignty. The protagonist's poor and pitiable image mirrors the miserable lives Korean children suffe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On the other hand, protagonists with cheerful and courageous personalities ultimately overcome their misfortunes to rise heroes-possible evidence of an optimistic worldview. Children's plays during this period also depicted several class-based problems, such as those between bourgeoisie and proletariats in capitalist societies, in patriarchal system, and with exploitation under colonial rule. Classism thus characterized Korean Children's plays in Manchuria. In the later years of Japan's colonial period, the most obvious feature of Korean children's play was the growing tendency to metaphorically interpret their plots and themes through Christian consciousness. The Manchuria Korean children's plays present new worlds founded on national liberation and freedom from colonial rule.

Key words : Manchuria, Man Son Daily,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play, family deficiency, class relations, the Christian consciousness